



사회 첫발을 내딛던 날

추 의 순 간
1966년



韓 鏞 澈
(서울대 의대 교수)

27년전 4년의 수련과정을 마치고:

이 사진은 지난 1962년 본인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로 발령을 받고 처음 지도 학생으로 4년동안 수련의 과정을 무사히 끝내고 사회로 첫발을 내딛게되어 병원 앞뜰에서 은사님들, 동료 및 수련의들과 함께 기념 촬영한 것이다.

어느새 27년이 흘러 이 사진을 보며 새삼스럽게 세월의 흐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.

그때 그 쩡쩡하시고 엄하시던 은사님 몇분은 작고하시고 또 몇분은 팔순이 다 되셨는데도 젊은 제자들보다도 환자보심과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사회와 국가발전에 봉사하고 계시다.

또 그때 그 젊은 Dr.들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히포크라테스정신으로 학계 및 개업의로서 사회에 봉사하며 후배양성과 의료계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매진하고 있다.